

경제학(7급)

(과목코드 : 004)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김군이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h 이고, 그 결과 얻어지는 점수(s)가 $s = \sqrt{h}$ 로 결정된다고 한다. 김군의 효용함수는 $u = a \times s - b \times h$ 라고 한다. 이 때 a 와 b 는 모두 0보다 크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군에게 성적은 재화이고 공부시간은 비재화이다.
- ② 가로축에 공부시간을 놓고, 세로축에 성적을 놓은 후, 김군의 무차별곡선을 그리면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a 가 클수록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 ④ 김군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공부시간을 선택한다고 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b 가 클수록 공부시간은 늘어난다.

2. 동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 있다. 시장 수요함수는 $Q = 10 - P$ 로 주어져 있으며, 두 기업 모두 $C(q) = 4q$ 로 동일한 비용함수를 갖고 있다. 다음 중 꾸르노 균형에서 각 기업의 산출량은 얼마인가?

- ① (1, 1)
- ② (2, 2)
- ③ (3, 3)
- ④ (4, 4)

3. 지급준비율이 10%이고, 현금이 50조가 있다면, 단순한 통화승수모형에 따른 이 경제 내의 통화량은 얼마인가?

- ① 50조
- ② 100조
- ③ 200조
- ④ 500조

4.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 \sqrt{Y}$ 로 주어졌다고 하자. 이 때 Y 는 소비자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이다. 현재 소비자는 100의 가치를 갖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1/2이고, 가치가 하락하면 그 가치는 0이 된다고 한다. 현재 소비자는 가치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다음 네 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나타낼 때 옳은 것은?

- A. 가치손실의 전액을 보상해주면서 보험료로 50을 내는 보험
- B. 가치손실의 전액을 보상해주면서 보험료로 75를 내는 보험
- C. 가치손실의 반액을 보상해주면서 보험료로 25를 내는 보험
- D. 가치손실의 1/5을 보상해주면서 보험료로 10을 내는 보험

- ① $A > B > C > D$
- ② $A > C > B > D$
- ③ $A > C > D > B$
- ④ $D > C > A > B$

5.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에 대해서 가정을 완화하여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행태경제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경제학은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 ② 행태경제학은 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융합학문 분야로 볼 수 있다.
- ③ 행태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무시해야 하는 작은 요소가 경제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 ④ 행태경제학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고려로 인해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6. 노동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임금을 상승으로 나타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동일하게 음의 방향으로 작동한다.
 - ②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하면 여가의 가격은 여가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 ③ 노동공급곡선은 임금율과 노동공급량 간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이다.
 - ④ 후방 굴절하는 노동공급 곡선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 나타날 수 있다.
7. X재와 Y재 두 재화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재는 X재의 대체재이다.
 - ②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 ③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재는 반드시 열등재이다.
 - ④ 두 재화가 동시에 열등재일 수는 없다.
8. 현재와 미래 두 기를 사는 소비자가 있고, 이 소비자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시작될 때 각각 W의 소득이 주어진다고 한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차입과 저축이 모두 가능하며, 현재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다음 중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들로만 묶인 것은?
- | |
|---|
| <p>A.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미래소비의 증가</p> <p>B.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저축의 증가</p> <p>C. 현재 차입을 하고 있는 경우 미래소비의 증가</p> <p>D. 현재 차입을 하고 있는 경우 차입의 감소</p> |
|---|
- ① A, D
 - ② B, D
 - ③ A, C
 - ④ A, B, C, D
9. 두 재화 A재(가로축)와 B재(세로축)에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증가세가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었을 때, 소득의 변화는 없었다. 이 때 나타나는 예산제약선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산제약선은 변화가 없다.
 - ②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 ③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 ④ 예산제약선이 원점을 향해 수평 이동한다.
10.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는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점기업이 선택한 이윤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항상 크다.
 - ②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산출량 수준에서 한계수입은 평균수입보다 작다.
 - ③ 독점기업이 선택한 이윤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 한계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도 있다.
 - ④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산출량 수준에서 반드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11. 금융정책이 재량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준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가장 먼 것은?
- ① 정치적 경기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칙에 따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 ② 통화량 증가율 준칙, 자연실업률과 연계된 준칙 등 다양한 준칙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적 준칙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 ③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준칙에 따른 금융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 ④ 준칙의 산식에 포함된 지표들이 선행하여서 또는 동행하면서 신속히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정책의 적시성을 놓치게 된다.

20. 코로나 19 사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지출 확대의 효과는 최초 지출확대 대상을 넘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는 승수효과를 가지게 된다.
- ③ 누진적인 소득세제는 경기침체 시 세제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세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로 작동한다.
- ④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소비자의 의도한 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21. 국가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 국가군의 성장률이 고소득 국가군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설명 중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 ① 저소득 국가군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 국가군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 ③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자본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기 때문이다.
- ④ 기술 전파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2. 2국가 2상품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한 국가가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두 상품 모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 ②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수출을 하면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되는 무역이 가능하다.
- ③ 비교우위는 해당 국가의 자원 부존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 번 결정되면 변경될 수 없다.
- ④ 무역은 각 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자신의 생산가능 곡선에서 벗어난 교역 후 소비점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23. A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데, 다음 표는 2010년과 2019년 X재와 Y재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0		2019	
	수량	가격	수량	가격
X재	10	8	20	15
Y재	10	12	20	15

- ① 2010년 명목GDP는 200이고, 2019년 명목GDP는 600이다.
- ② 2010~2019년 동안 실질GDP 성장률이 명목GDP 성장률보다 높다.
- ③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한 2019년 실질GDP는 400이다.
- ④ 2010년 GDP디플레이터는 100이고, 2019년 GDP디플레이터는 150이다.

24. A국은 노동을 총 10단위 가지고 있고, B국은 노동을 총 20단위 가지고 있다. 두 국가는 노동을 투입해서 X재와 Y재를 생산하며, 두 국가의 X재와 Y재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두 국가 사이에 노동의 이동이 불가능할 때, 두 국가 사이에 교역이 일어나려면 p_x/p_y 가 어떤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가?

	X재 생산함수	Y재 생산함수
A국	$Q_X = L$	$Q_Y = 2L$
B국	$Q_X = 6L$	$Q_Y = 3L$

- ① $0.5 < p_x/p_y < 2$
- ② $1 < p_x/p_y < 3$
- ③ $1 < p_x/p_y < 6$
- ④ $2 < p_x/p_y < 3$

25. 현재 지급준비율이 20%이고 민간의 현금보유 비율이 25%인 경우, 1원의 본원적 통화가 창출하는 총예금의 크기는?

- ① 1.5원
- ② 2.5원
- ③ 3.5원
- ④ 4.5원